

기본급 141,300원 인상! 통상임금 관련 임금체계 개편 및 임금저하 금지!
노조활동시간 보장! 발암물질 및 CMR독성물질 사용금지!



지부교섭 속보

6호

2025.05.29(목)

□발행처:교육선전부 □발행인:권현구 □주소: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18 무진빌딩 8층 □전화:043-236-5077 □http://dc.kmwu.kr

[6차 지부교섭_ 사측 1차 제시안]

작업중지권 원안 쟁취한다!



사측 불참 더 엄격하게 제한하겠다

충주 KDK에서 6차 지부교섭이 열렸다. 5차 지부교섭에 일방적으로 불참했던 사측 교섭위원의 사과로 교섭이 시작됐다. 하지만 사측 교섭위원은 여전히 불가피한 사유로 불참했다고 해명해서 빈축을 샀다. 지회도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사전에 협의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불참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다. 노측 교섭위원들은 향후 사측의 불참 문제를 더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1차 제시안, 논의할 수준 안된다

이날 교섭에서 사측의 1차 제시안이 나왔다. 하지만 임금인상, 노조활동시간 보장, 작업중지권, 금속산업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아무 내용도 제출하지 않았다. 노측 교섭위원들은 별도 질의응답이 필요치 않은 수준의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사측은 중앙교섭에서 작업중지권 등이 제시되지 않아 지부교섭에서 제출하기 어렵다는 핑계를 대면서도, 중앙교섭에서 제시되더라도 지부교섭에서 동일하게 제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사업장 별도 합의는 없다!

권현구 지부장은 교섭 마지막에 “올해 작업중지권은 원안대로 쟁취할거다. 감안해서 준비하셔라. 또 사업장 별도 합의는 없다. 반드시 전체 공통안으로 준비하셔라.”라며 사측을 압박했다. 노측 교섭위원들은 차기 교섭에서는 임금인상을 포함해서 일괄 제시안을 제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교섭을 마쳤다.

* 차기 교섭 : 6/5(목), 교섭차수 인정하고 미개최
6/12(목) 14:30, 리택

6차 교섭 속기록

임금인상 포함해서 제출해라

노 : 전차 교섭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교섭이었다. 다시는 그런 불상사 없으면 좋겠다. 오늘 제시안 있다고 들었다.

사 : 지난주 교섭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다. 사전에 소통했다고 생각했는데 오해가 있었다.

노 :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 상견례에서 상호간에 신뢰를 기반으로 불가피한 경우만 불참을 인정하기로 했다. 기본적으로 충분히 사전에 지회가 납득할만한 사유인 경우 인정하고 있다. 지난주 한은 교섭위원의 일정은 그런 사유로 보이지 않고 지회도 이해하기 어려운 사유였다. 규칙은 지켜달라. 사측 교섭위원들이 불참하는 것에 대해 더 엄격하게 볼 수밖에 없어졌다.

<1차 제시안 제출>

사 : 지부요구안을 우선순위로 두고 제출했다. 임금인상은 이제 막 상견례 시작한 지회도 있어서 시간이 필요하다. 임금의 정의는 조합에서 요구한 임금항목 중 후생복리와 기타 임시금품에 대해 엇갈리는 의견이 있다. 판례에 의해서 임금성 아닌 복리후생비가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출하지 않았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내용은 법의 정의대로 제출했다. 근로조건의 기준도 법과 판례에 따라 제시했다. 노조활동시간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서 추후 제시하겠다. 발암물질 사용금지는 조합측이 내용 보시고 문제가 있는 부분 있으면 제기해주셔서라. 통일요구안은 중앙에서도 제출하지 못해서 지부도 이번에 제시안을 내지 않았다. 금속산업 최저임금도 법정최저임금이 나오지 않아서 추후 제시하겠다.

노 : 발암물질, 독성물질만 따로 이 자리에서 질의응답하는 것은 불필요할 것 같다. 지부요구안을 우선순위에 두기 보다 통일요구를 우선적으로 다뤄야 한다. 중앙교섭에서 안됐다하더라도 지부교섭에서 제출하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그리고 임금인상 제시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지부교섭에서 임금 인상안 제출하라고 하는데 계속 안되고 있다. 몇 개 사업장은 이미 제시할만한 내용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다. 이렇게 하면 진도가 안나간다. 사측 교섭위원이 여러 가지 요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섭 진도가 나가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가 안되고 있다. 차기 교섭에서는 임금까지 반드시 제출하셔야 한다. 전체 사업장이 다 내지 못하더라도 준비되는 사업장은 제출해라. 임금 늦게 제출하는 3개 사업장은 노측 입장으로 페널티를 어떤 방식으로든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런 태도면 작업중지권을 중앙교섭에서 내지 않으면 안내실건가?

사 : 지부교섭 사업장 중에 중앙교섭 사업장 2개 밖에 안된다. 중앙교섭에서 제시안 나가더라도 바로 동일하게 지부교섭에서 제출하지 못할 수 있다. 중앙교섭과 별도로 지부교섭 진전시키자고 하는데 그래도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노 : 진정성 보여주려면 중앙교섭 제시안 나오기 전에 지부교섭에서 안을 제출해야 한다. 작업중지권은 원안 수용을 목표로 투쟁할거다. 중앙교섭도 그렇게 될거다. 염두에 두고 준비하셔서라. 올해는 사업장 별도 합의하는 것 없다. 무조건 공통안으로 제출하셔야 한다. 오늘 제출된 제시안도 핵심적인 내용이 빠진 것이 많다.